

아니다. 능력과 관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아동은 누구나 현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받음으로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작용과 이것이 갖는 중요성은 소위 실험적(experimental)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듀이철학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실험적이라는 말은 바로 능동적이며 통제된 앞의 작용을 의미하며, 인간사고의 능력에 기초한 논리와 경험을 통한 사회개조라는 논리를 의미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재만, *듀이철학*, 서울 : 배영사, 1980.
- Dewey, J., *Problems of Man*, N. Y. : Philosophical Library, 1946.
- Dewey, J.,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Boston : Beacon Press, 1957.
- Dewey, J., *The Quest for Certainty*, N. Y. : G. P. Putnam's Sons, 1960.
- Dewey, J., *How We Think :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Lexington, Massachusetts : D. C. Heath and Company, 1960.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 Y. : The Free Press, 1968.
- Hahn, L. E., "Dewey's Philosophy and Philosophic Method," Jo Ann Boydston (ed.), *Guide to the Works of John Dewey*, Carbondale and Edwardsville : Southern Ill. Univ. Press, 1972.
- Kennedy, G., "Dewey's Logic and Theory of Knowledge," Jo Ann Boydston (ed.), *Guide to the Works of John Dewey*, Carbondale and Edwardsville : Southern Ill. Univ. Press, 1972.
- Winn, R. B., *John Dewey : Dictionary of Education*, Philosophical Library, 1959.

기독교 성인교육에 관한 한 고찰

(Studien zur christlichen Erwachsenenbildung)

강 용 원*

목 차

1. 서 론
 2. 누가 성인인가?
 3. 기독교 성인교육의 역사
 4. 성인교육의 개념, 필요성, 현실
 5. 성인교육의 근거들
 6. 성인교육의 원리
 7. 결 론
- 참고문헌목록

1. 서 론

성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갱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교회의 회원중 대다수가 성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교육 필연적 존재라는 사실과, 인간의 영적 성숙이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된다. 이 소고에서는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해 나감으로서 이 주제에 관한 계속적인 논의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부교수, 실천신학

2. 누가 성인인가?

‘누가 성인인가?’라는 질문은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질문의 하나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성인이란 어떤 일정한 나이에 다다른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성인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폴트(Martha M. Leypoldt)는 다음 네가지로 성인기를 설명하고 있다.¹⁾

- 성인기는 어떤 일정한 나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어떤 나이에 도달하는 것으로 성인에 이르렀다고 범주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성인기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포함한다. 의존적 자세에서 독립적 자세로 변화하는 데는 일련의 경험이 포함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성인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지속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성인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인이란 스스로의 결정권과 행위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련의 경험을 포함한다.

- 성인기 역시 되어지는 과정이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성인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성인기를 통하여 이런 변화의 과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기는 청장년(The Young Adults), 중년(The Middle Aged Adults), 노년(The Aged Adults)으로 나누어진다. 이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기간이며, 중요한 시기이다. 성인기의 특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성숙한 인격에 관한 연구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교 성인교육의 역사²⁾

기독교 성인교육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성인을 향한 교육은 시작되었다.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교육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현과 꿈과 음성으로 친히 성인들을 교육하신 것을 보게 된다. 출애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주어진 율법 아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도록 하셨다.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인의 교사로서 일했음을 보게 되며, 왕에게도 백성을 가르칠 책임이 주어졌다. 여호사밧왕은 백성들에게 종교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다. (대하 17 : 7-9) 포로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일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이 성인교육의 센터로 회당이 생기게 되어, 근 400년간 지속되었다. 우리 주님 자신도 성인교사로서의 직무를 다하셨다. 그는 만나는 성인들을 교육하셨고 또한 자신의 과업을 계속하시기 위해 뽑혀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1) Martha M. Leypoldt, Learning is Change (Valley Forge : Judson Press, 1971), pp. 9f.

2) 참고,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 신청기 역, 기독교교육사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0), pp. 31-107.

마태복음 28 : 19-20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성인교육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세례에 선행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듣게된다. 사도행전 8 : 26-40에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바른 이해가 세례의 전제로서 나타난다. 우리는 고대교회의 성인교육을 5세기초 어거스틴의 책 De catechizandis rudibus (The Instruction of the Uninstructed)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내용(구속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세례요청자들의 교육수준, 언어, 그리고 그들의 동기등에 관한 세분화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성인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중세의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나, 종교개혁시대와 정통주의의 요리문답들, 그리고 17-19세기의 경건주의 시대의 Collegia Pietatis 등을 기억할 수 있다.³⁾

다른 곳에서 논의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인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진 것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9세기의 서구 사회의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즉 산업화와 그와 병행된 기술혁명, 잘 교육받은 노동력에 대한 증가하는 필요, 민중의 계몽, 그리고 결국 하층구조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보충적인 요구 등과 관련된다. 이와같은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이고, 사회의 변동을 취급함에 있어서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성인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승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열거해야 할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계속되는 축소, 증가하는 평균수명, 직업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 경제와 제도의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화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⁴⁾

성인교육의 역사를 살펴볼때 흥미롭게 밝혀지는 것은 성인교육이 강조된 시대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교육이 강조된 시기는 다음의 세 시대로 볼 수 있다.

- 고대 히브리 역사에서 보면 가르치는 자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타나며, 이들은 주로 성인을 가르쳤다. 선지자를 나타내는 말인 나비(Nabi)는 종교교사를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풀어주는 자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였다. (신 18 : 18; 렘 1 : 17) 제사장의 직책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신정정치 하에서의 제사장은 선지자와 협력하여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했다. (렘 18 : 18; 호 4 : 6; 말 2 : 7; 겔 44 : 23; 신 33 : 10) 특히 제사장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선지자와는 약간 강조점이 다른데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숙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썼던 것이다. 이와같이 고대 히브리인에게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한 성인교육이 크게 강조되었다.

3) K. Wegenast, Evangelische Erwachsenenbildung, in : Adam, G., Lachmann, R. (Hrsg.), Gemeinde-paedagogisches Kompendium, Goettingen 1987, S. 379.

4) K. Wegenast, a. a. O., S. 379f.

- 초대교회는 다시 새롭게 성인교육을 강조하였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듯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예루살렘교회가 크게 성장한 후 그들에게는 핍박이 다가왔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 사실은 성인이 흩어져서 가르치고, 전도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 기독교의 공인 이후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와 함께 일어난 새로운 학문의 운동은 탐구의 정신과 연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었고, 이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인교육의 새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주체인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교육 내지는 국가교육의 형태로 발전되어 나갔다. 이는 다 성인의 가치와 교육을 중시한 움직임이었다. 이와같이 성인교육의 강조와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은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 다시 성인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심화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제4의 부흥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4. 성인교육의 개념, 필요성, 현실

4.1. 성인교육의 개념

성인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들의 지평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역사적, 사회적으로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시기 이후로 다양한 성인교육의 기본형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⁵⁾

- 과도기적인 성인교육(transitorische Erwachsenenbildung) : 이것은 종교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변화와 관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세대로 하여금 과도기 시기에 주어진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능을 갖는다. 이 일이 어느 기간에 이루어지면, 성인교육은 일반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사회는 그의 노력을 성장하는 세대에 쏟게 된다. 예를 든다면, 종교개혁시대에 농업방법의 도입에 있어서, 18세기와 근대의 제3세계의 나라들에서의 문맹퇴치운동과 정치적 재교육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 보상적인 성인교육(kompensatorische Erwachsenenbildung) :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시절에 체험한 교육적 피해를 보정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중요한 예를 들자면, 19세기의 “노동자교육연맹”의 노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성인교육은 해방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 보충적 성인교육(komplementaere Erwachsenenbildung) : 이러한 유형의 성인교육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급격한 발전과, 각자의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시기나 청소년 시기에 받은 교육을 보충해 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인들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재교육이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

5) K. Wegenast, a. a. O., S. 381.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은 자기 자신과, 사회, 세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에 걸맞게 행동하는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살아가는 성인을 형성하는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⁶⁾

4.2. 성인교육과 평생교육

오늘날 교육의 여러가지 추세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이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집중되기 보다는 평생을 거쳐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이 대두된 중요한 요인으로는 지식의 팽창, 여가생활의 급증, 고도산업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직업사회의 변화,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 학교교육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의 개념이 시간적으로는 성장하는 세대에, 공간적으로는 학교에서의 교육에 제한된다면, 평생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육의 개념을 가진다. 이 평생교육의 개념은 유네스코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명시될 만큼 보편화되고 있다.⁷⁾ 평생교육은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모든 연령층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교육과 학교, 사회,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을 총칭하며,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삶의 세계는 너무도 방대하고 심오하여 아무리 배워도 충분히 배울 수 없다. 아무리 빨라도 이르지 않으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배우기 위해서는 너무 늦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이런 평생교육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성인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또한 기독교 성인교육을 자극한다고 하겠다.

4.3. 성인교육의 필요성

이미 평생교육의 대두를 가능케한 몇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의 성인교육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성인기는 인생의 가장 긴 연령층이 되었으며, 교회의 구성원의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그들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는 세대이며,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이 요구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성인교육은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개혁과 선교의 주체로서의 평신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새롭게 강조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력한 평신도를 깨우치고, 주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성인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성인교육은 성인들을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만이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의 현실 세계와 관련을 지어 나가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교회는 성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돕고, 사회의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바른 지침과 통찰력을 제공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고뇌와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긴장관계를 수습하며,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그

6) im Gutachten des Deutschen Ausschusses fuer das Erziehungs- und Bildungswesen zur Situation und Aufgabe der deutschen Erwachsenenbildung aus dem Jahre 1960, K. Wegenast, a. a. O., S. 381.

7) 제29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6항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들은 교회가 사회의 문제들(공해, 인권, 도덕 및 사회질서, 마약, 범죄, 낙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인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어린이가 내일 모래의 희망이라면, 청소년은 내일의 희망이며, 성인은 오늘의 희망이다. 만약 교회가 어린이를 잃으면 두 세대안에 망할 것이며, 청소년을 잃으면 한 세대 안에 망할 것이며, 성인을 잃으면 바로 그 세대에 망할 것이다.”⁸⁾

4.4. 한국교회와 성인교육

교회는 다른 기관 보다도 성인들을 많이 접촉하지만, 그들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성인교육이라고 불렀던 것은—아직도 지속되는 곳이 있지만—주일 예배시간 전에 모여 약 30분 정도의 장년공과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사경회의 전통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 성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으로 과거에 해 오던 것을 비판없이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교회가 이미 이런 형태의 교육이 효과면에서 약함을 알고 장년공부를 폐지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성인교육과 관련하여 제자교육이나, 각종 성경연구반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목적의식의 결여, 목회자의 개인적 취향 중심, 성인학습의 원리 무시 등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인은 그 연령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성별, 직업, 관심, 신급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을 구성하고 있으나 클래스를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목회를 교육적 근거에서 실행하려는 교육목회를 개발하고 전개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목회적 노력이란 ‘목사인 교사’(pastor-teacher : 엡4 : 11)가 행하는 목회의 제반 영역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목회 기능인 설교, 심방, 상담, 예배 및 제반 의식, 교제, 봉사의 교육적 의미 부여와 개발(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설교와 교육의 상관관계 및 교육적 설교의 탐구, 의식과 상징의 교육적 개발 및 교육예배의 구상, 세례, 입교, 유아세례, 결혼, 장례, 성만찬 의식의 교육적 탐구, 목회상담의 교육적 차원, 심방, 교제의 대화적 차원, 봉사와 섬김의 실천교육적 차원 탐구 등), 목회구조와 방법에 교육적 원리를 적용하는 일—즉 일방통행적인 구조에서 상호통행적이며 참여를 복돋우는 구조로의 전환, 전 회중을 교육 시스템으로 조직하는 일로서 결국 교회를 “교육하는 교회”,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로 이끄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전 회중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목사의 교육적 기능의 자각과 지도성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전혀 낯설은 과업만은 아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목회자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교육목회에 대한 관심은 바로 성인교육의 관심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다.

8) J. Sismore, “The Challenge of Adult Christian Education”, in : Zuck, Roy B. and Getz, Gene A. (ed.),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 Moody Press, 1970), pp. 14f.

5. 성인교육의 근거들

5.1. 성경적 근거

기독교 성인교육의 근거는 먼저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은 신자의 삶의 전 과정을 변화와 성장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자의 삶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것은 근본적인 삶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국면들이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의 전 생애를 지나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사물과 인간, 그리고 그가 섬기고(예배적 사명), 옆으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며(인화, 선교적 사명),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문화적 사명) 일을 포함한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와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 인격적 변화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 많은 신분이나 자격에 추가된 또 하나의 신분이나 자격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특징 짓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행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와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또한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삶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삶인 성화의 과정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되고 이것은 결국 평생교육의 성경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엡 4 : 13과 빌 3 : 12-14)

5.2. 학습심리학적 근거

성인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는 성인기를 배울 기회를 놓쳐버린 시기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최근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쏘다이크(E. L. Thorndike)에 의하면 학습의 황금기는 20세에서 25세 사이이며, 25세부터 42세까지는 학습능력이 매해 1% 정도씩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⁹⁾ 그러나 그 후에 다른 학자들은 더욱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다. 예를 들면 룯지(Irving Lorge)는 성인의 지적능력은 20세에서 60세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단지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학습의 속도는 감소하지만 이것도 지능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격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제 학습능력이 연령의 증가에 반비례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물론 시력, 청력등의 학습보조 능력의 감소는 학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을 요구하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오히려 학습의 자산이 되고 있음을 많은 실례로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성인들이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배우고 있다는 것,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배움을 계속할 수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우쳐줄 필요가

9) cf. E. L. Thorndike, *Adult Learning* (New York : Macmillan, 1928), pp. 177f.

있다. 성인부 지도자는 성인들이 그들의 능력과 지혜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먼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배우려는 욕구를 갖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¹⁰⁾

5.3. 발달심리학적 근거

오늘날 콜버그, 화올러, 에릭슨, 레빈슨 등의 발달이론들은 성인도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발달의 단계 속에 있음을 증거하면서, 연장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성인기에도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심각한 변화와 발달이 병행되므로 각 변화단계에 적응할 생의 준비가 요구된다. 이것이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라는 개념이다.¹¹⁾ 그러므로 청장년, 중년, 노년기에는 그 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은 탄생으로부터 죽을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사람이 살아있는 한 교육에는 끝이 없는 것이다. 이제 발달과제의 예를 들자면, 청장년기에는 배우자의 선택, 부부공동생활의 습득, 부모가 되는 문제, 자녀의 양육, 직업의 선택 및 직업생활, 시민으로서의 책임, 인간관계와 여가의 문제, 가정의 관리 등이며, 중년기에는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 중년의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 배우자와의 인간적 관계 유지, 경제적 표준생활의 유지, 청소년 교육 및 자녀 결혼,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 여가의 선용 등이고, 노년기에는 쇠퇴하는 체력과 신체적 건강의 문제, 은퇴와 수입의 감소, 배우자와의 사별의 적응, 죽음을 준비하는 일, 동년배 사람들과의 사귀, 고독의 문제, 노년에 맞는 생활환경의 조성, 사회와 가정에서의 상담자로서의 위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고부간의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신앙과 삶과 관련된 중요한 관심의 영역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¹²⁾

5.4. 평신도의 새로운 발견

종교개혁은 평신도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었다. 교회개혁과 선교의 주체는 평신도임이 강조되고 있다. 무력한 평신도를 깨우치고, 주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성인교육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교회의 앞날은 사실 평신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성인의 영향력과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된다.¹³⁾

이미 종교개혁자 루터, 쾰링거, 그리고 칼빈은 모든 세례받은 자들이 속하는 모든 신자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하였다. 물론 공식적인 설교나 성례의 집행은 목사의 일로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는 수 세기를 두고 분명히 목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목사의 교회였다. 목사는 생산자이며, 교인들은 교회의 활동의 소비자가 되었다. 그러나

10) 김재은, 성인교육론 (서울:성광문화사, 1990), pp. 137f.; Apps, Jerold W., How to improve Adult Education in your Church, 김재은 역, 교회의 성인교육을 어떻게 개선할까 (서울:킨콜디아사, 1984), p. 27.

11) Robert 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 1961.

12) 참고, 김재은, op. cit., pp. 134f.

13) 참고,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p. 232-306.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반대의 움직임을 체험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모든 목사의 일을 위해 그와 함께 일하는 교인들의 그룹이 생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교회는 성인교육을 위해 이러한 그룹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배의 구성을 함께 돕는 그룹, 심방그룹, 그리고 병자를 돌보기 위한 그룹 등) 앞으로 성인교육은 이러한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 활동방안의 핵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¹⁴⁾

5.5. 새로운 인간관

최근에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탐구해야할 미지의 대륙이 되었다. 처음에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차이점, 특히 우수한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주목된다.¹⁵⁾ 포르트만(Adolf Portmann)은 1962년에 유명한 책 “동물학과 새로운 인간상”(Zoologie und das neue Bild vom Menschen)을 펴냈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이 원숭이처럼 충분히 성장해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태내에서 21개월을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을 가르쳐 “너무 일찍 태어난 존재”라고 하였다. 또한 Gehlen은 인간을 가르쳐 “결핍된 존재”라고 하였고, Bolk는 너무 천천히 자란 존재라고 하였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미완성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자각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곧 인간의 교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며, 또한 필연성이다. 인간은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으며, “한 개인의 전 생애는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에릭 프롬의 말은 성인교육을 위한 참된 통찰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¹⁶⁾

14) Werner Kramer, Gemeindepaedagogik in der Schweiz, Vorlesung in Pusan, Korea, 1991. 9. 24.

15) 참고, 오인택, “기독교 교육인간학 서설”, 교회와 신학 12 (1980), pp. 217f.; 손봉호,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람), KBS 3TV 방송대학 강좌.

16) 참고, Faure, Edgar, et. al. (ed),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오기형, 김현자 공역, 인간화 교육 (서울:일조각, 1975), pp. 171ff.

“이제부터 교육은 소화시켜야 할 고정된 내용과 연관하여 규정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간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세계에 대하여 의사전달을 하고 질문을 하며, 항상 더욱 더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경제학과 사회학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이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시사해 주는 심리학적 연구의 발견에도 강한 근거를 두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은 일생의 모든 연령에서, 생존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되어질 수 있다.” Ibid. p. 154.

“현대과학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미완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줌으로써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특유한 공헌을 하였다. 인간은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재는 완성과 배움의 끝없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을 다른 생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은 원래의 이 불완전성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본성과 직감이 그에게 주지 못한 생활의 기술을 자신의 환경에서부터 끌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는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한 현대 심리학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난다. 그는 한 아들의 잠재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다. 그 잠재성은 流産해 버릴 수도, 또는 개인이 유리한, 혹은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는 원래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실상 그는 끊임없이 ‘생을 시작’하며 또는 끊임없이 인간의 형태로 태어난다. 이것이 평생교육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이론적 근거이다.” Ibid., p. 171.

6. 성인교육의 원리

이제 성인교육의 원리를 목적과 내용, 프로그램의 선정, 그리고 성인 학습의 원리 등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6.1. 목적과 내용

기독교 성인교육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바른 자아인식을 확립하고, 신앙공동체 속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¹⁷⁾

- a.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정립해 나간다.
 -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해한다.
 - 교리와 신조에 표현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체계있는 지식과 이해를 갖는다.
 -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와 경건생활을 유지한다.
 - 신앙을 기초한 통합된 기독교적 인격체로서의 자기 실현을 이룬다.
 - 삶의 과정에서 맞게 되는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 b.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한다.
 - 교회의 바른 모습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회형성과 교회개혁에 참여하며, 개 교회의 내적 성숙을 모색한다.
 - 교회의 회원의식을 갖고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에 참여한다.
 - 건전한 기독교 가정을 건설해 나간다.
- c.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며, 문화적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책임을 수행한다.
 - 기독교적 윤리와 가치관을 기초로 매일의 사회적 삶 속에서 분별력있는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그가 살고 있는 세계 및 사회의 기본 문제들에 대해 연구, 반성하고,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한다.
 - 현실의 오염된 문화를 비판할 능력을 가지고,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기독교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 타 종교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성인교육의 목표를 기초로 성인교육의 내용이 도출될 수 있는데, 성경, 신학과 교리, 현대의 윤리 및 사회적 문제들, 직업문제, 크리스찬의 가정생활, 기독교문화, 타종

17) 참고, 교용수,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 작성방향", 교육교회 (1987. 10), pp. 862f.

교 문제, 교회생활의 제반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하는바 보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 프로그램의 개발

성인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보면, 성인교육의 형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의 부족, 목적의식의 결핍에 따른 통일성과 일관성의 결핍, 성인들의 참여에 대한 훈련 결핍, 훈련되지 못한 지도자와 부족한 자료,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선 연령별 조직으로서의 성인부를 교회학교의 조직 속에서 활성화 시키고, 기타 비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적 프로그램의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연령에 의한 조직에서 떠나 직업, 관심, 요구, 성별, 신앙수준 등에 따라 소그룹화하여 그 그룹의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에 흥미를 주므로 동기유발을 돕고,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도록 한다. 특히 설비면에도 관심을 갖고 안락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앞으로의 교회는 더욱 더 다양한 그룹들을 기초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며, 예배도 현재 행하고 있는 헌신예배의 형식을 탈피하여 이와같은 그룹을 이용하여 구성한다면,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특별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능한 성인교육의 프로그램을 몇가지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성경공부를 포함하는 제자훈련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과정에서 시작하여, 초신자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단계, 전도자의 단계, 지도자의 단계 등으로 구조화 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될 교재, 지도 방안 등을 확립한 후, 조직적으로 실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청장년부, 중년부, 노년부의 성경공부, 친교 및 특별활동의 시간을 개설하되 주일이 어려우면 평일에라도 실시한다.
- 성인교육을 위해 3-4일 정도로 1년에 두차례 정도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하루에 3시간 정도로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 성경공부, 신학일반,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부한다.
- 매주 일회 정도로 건의함을 기초로 성인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로 주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 "창조의 보존" "질병, 치유, 구원" 등.
- 월 1회 이상 목사를 중심으로 대화의 모임을 갖는다.
- 각 부서 별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갖는다. (당회, 제직회, 권찰회, 남전도회, 성가대, 여전도회 등)

-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갖는다. 교재와 차트, 흑판, 성경지도, 오버헤드 프로젝트 등을 준비한다.

- 구역예배의 지도자를 훈련하여 구역모임을 심도있는 성경공부 시간으로 만들며, 또한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수련회나 수양회를 갖는다.

-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부교육, 자녀교육, 신부교육, 신혼부부교육, 가정예배를 중심한 영성훈련, 가족찬양, 가족캠프, 독신자 및 홀로된 사람을 위한 모임)

- 부모교육은 곧 어린이 교육으로 직결되므로, 유아세례를 위한 교육의 시간, 각 연령층의 부모를 단위로 종교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교회 도서관을 설치하고, 독서클럽을 조직하여 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다양한 이웃과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사랑의 전화, 편지쓰기, 불우청소년이나 소외자 초청 모임)

- 인간관계훈련, 기초공동체 훈련, 주부대학, 경로대학, 각종 취미학교 등의 특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6.3. 성인학습의 원리

효과적인 성인교육을 이루기 위해 성인학습의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¹⁸⁾

a. 자아 지향적 학습

성인교육론에 의하면 어린이 교육이 교사지향적 학습이라면, 성인교육은 자아(학습자) 지향적 학습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학습은 그 초점을 개인에게 두어야 한다. 학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학습자만이 자신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아이디어가 제공될 따름이다. 성인에게 있어서 학습자 자신의 경험이 이상적인 학습자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성인 자신이 간과되기가 쉽다. 성인들은 삶의 경험이 많고 문제 해결과 학습의 경험도 풍부하므로 그룹에서 토의되는 대부분의 주제들에 관하여 각자가 기여할 영역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재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학습자들은 학습상황에서 그들이 신뢰받는 존재들임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의 경험을 서슴없이 나누게 된다. 성인교육 지도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아지향적 학습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능동적인 참여의 원리로 연결된다.

b. 능동적인 참여학습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듣는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침을 받았지만 질문하

고 의미를 찾고 관계성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의 성인교육은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성인학습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능동적 참여에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 학습자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무엇을 배울가를 정하는 일,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일, 학습이 수행되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일 등에 참여해야 한다. 우선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의 흥미, 관심, 요구 등을 파악하는 일이다.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와 지도자 사이에, 그리고 학습자 서로 간에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서로의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와 개방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적 개선에 함께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모험에 대한 용기이다. 학습자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자유가 보장되고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에는 언제나 모험이 따른다. 학습자는 오류를 범하기도 할 것이며, 또한 실패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러한 모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잘못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은 그에게 보다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며, 그의 학습은 보다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지도자에게 상이점을 용납하고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대면함을 매우 두려워하며, 학습 그룹은 언제나 즐겁고 서로간에 의견 차이가 없이 통일된 의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권장하는 분위기에서는 의견의 차가 생긴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학습분위기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능동적인 학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위한 여지가 있어야 하고, 그 아이디어 중에는 서로가 반대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습의 과정은 학습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학습의 한 가지 목표는 사람들이 자아지향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 일이다. 성인학습에 있어서 교사는 본질상 다만 학습과정의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참여자들 스스로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도록 고무할 뿐이다.

c. 환경지향적 학습

무에서 시작되는 학습은 없으며, 특히 그런 성인교육은 없다. 교육이란 언제나 일정한 전제에서 시작되는데, 즉 일정한 인간과 사회문화에 관한 조건, 어떤 일정한 발전상태, 이전의 학습과정,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과 관련을 가져야 하는데, 만약 성인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 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이런 전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참여자와 함께 인식하는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의 경험들과,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일정한 교사로부터 또는 학습상황으로부터 얻어진 경험들, 그리고 특별한 교수-학습 스타일에서 얻어진 경험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8)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재은, op. cit., pp. 123-168; Apps, op. cit., 36-45, Apps는 성인학습을 위한 지침으로 다음 몇가지를 들고 있다. a. 학습의 초점은 개인에 두어야 한다. b. 온 인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 c.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d. 지도자는 모험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e. 학습자 자신이 이상적인 자료이다. f. 상이점을 용납하고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g. 학습의 과정은 학습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참고, K. Wegenast, a. a. O., S. 402-410.

7. 결 론

이상과 같이 기독교 성인교육에 관해 개론적으로 살펴 보았다. 결론을 대신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일의 설교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성인교육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교육의 성패는 곧 교회의 미래와 크게 관련된다. 오늘의 막중한 책임이 지워진 성인이 올바르게 서는 것은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밝게 해 줄 것이다. 앞으로 성인교육에 대한 깊은 연구와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목 록

- 강용원, “교회 노인사역의 기본방향”, 교회교육 48 (1990. 5) : 13-17.
- 고용수,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 작성방향”, 교육교회 (1987. 10), 858-865.
- 김재은, 성인교육론, 서울 : 성광문화사, 1990.
- 오인탁, “기독교 교육인간학 서설”, 교회와 신학 12 (1980) : 217-246.
- 오인탁, “기독교 성인교육의 목적과 의미”, 교육교회 (1987. 2), 121-132.
-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Apps, Jerold W., How to improve Adult Education in your Church, 김재은 역, 교회의 성인교육을 어떻게 개선할까, 서울 : 컨콜디아사, 1984.
- Eavey, C. 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김근수, 신청기 역, 기독교교육사,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0.
- Faure, Edgar, et. al. (ed),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오기형, 김현자 공역, 인간화 교육, 서울 : 일조각, 1975.
- Groothoff, Erwachsenenbildung und Industriegesellschaft, 한국사회교육협회의 편역, 산업사회와 성인교육, 서울 : 배영사, 1978. (교육신서 62)
- Hennig, Peter, Altenarbeit, in : Adam, G., Lachmann, R. (Hrsg.), Gemeindepaedagogisches Kompendium, Goettingen 1987 : 414-430.
- Leyboldt, Martha M., Learning is Change, Valley Forge : Judson Press, 1971.
- Peterson, G. A. (ed.), The Christian Education of Adults, 이정효 역, 성인 기독교교육, 서울 : 마라나다, 1988.
- Sismore, John, “The Challenge of Adult Christian Education”, in : Zuck, Roy B. and Getz, Gene A. (ed.), Adult Education in the Church, Chicago : Moody Press, 1970 : 9-18.
- Thorndike, E. L., Adult Learning, New York : Macmillan, 1928.
- Wegenast, K., Evangelische Erwachsenenbildung, in : Adam, G., Lachmann, R. (Hrsg.), Gemeindepaedagogisches Kompendium, Goettingen 1987 : 379-413.
- Wilbert, W. N., Teaching Christian Adult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0.

아동의 지능발달에 있어 능력분화가설

Ability differentiation hypothesis in Children's Intelligence Development

김 상 윤

서 론

학교나 군대에서 아동이나 군인들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실제적 필요에 의해 초기의 지능검사들이 개발되면서 지능에 관한 연구들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실용적 관점을 지녔던 Binet(1915)의 지능검사도구에 대한 반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Spearman(1927)에 의해서였다. 그는 지능에는 언어, 기억, 추리, 수량, 공간, 지각, 운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능력들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반요인이 존재하며 이것이 지능의 절대지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지능을 일반요인과 특수요인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이요인론(二要因論)이라고 불리운다. Spearman은 인간지능 연구에 요인분석의 방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그후 다요인분석법을 처음 창안한 Thurstone(1938)은 지능에는 7개의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본정신능력(PMA : Primary Mental Ability)이라고 불렀다. 이는 지능의 각 요인을 따로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적성검사(Aptitude Tests)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이 지능에 관한 여러가지 요인들을 확인하는 기술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Thurstone은 연령단계에 따라 지능검사의 내용을 변화시켜 5-7세 아동의 경우는 근육능력, 지각속도, 양적능력, 추리능력, 언어능력과 공간능력으로 측정을 하고, 7-11세의 경우에는 양적능력 대신 수리능력을 포함시키고 근육능력을 제외시켰으며, 나머지는 5-7세 아동의 문제와 동일하게 했다. 11-17세의 경우는 지각속도가 빠지고 새로이 언어유창성이 들어가고 나머지 문제는 7-11세와 동일한 문제를 넣었다. 이 사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작용하고 있는 지능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비교적 서로 독립적인 여러 지적 요인으로 분화된다는 지능분화가설을 낳게 되었다.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여러가지 요인들이 수렴되어 가는지 아니면 분화되어 가는지